

# People & Life

## 만학의 꿈 이론 졸업 2편

### “배움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 “대학 가든 안가든 공부 계속”

#### 호남대 졸업 84세 장향례 할머니



“공부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열정과 미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다면 새로운 도전은 아름답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80세를 훌쩍 넘긴 할머니가 손자뻘 학생과 나란히 화사모를 쓴다.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보여준 주인공은 오는 25일 호남대 일본어학과를 졸업하는 장향례(84) 할머니.

장 할머니의 평생 꿈은 만학(晩學) 만큼 우여곡절로 점철돼 있다.

일제 강점기 전북 고창의 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장씨는 영광에서 북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만주에 사는 숙부를 찾았다가 중국에 잠시 정착했다.

80세를 넘긴 나이에도 2년간 결석은 물론 지각한 번 없이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한 장씨는 평점 4.27으로 우수상과 함께 공로상도 받는다.

졸업 후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강의 등 봉사하고 싶다는 게 장씨의 바람이다.

6남매를 교사와 약사 등으로 훌륭하게 키운 장씨

#### 대신고 졸업 72세 이이순 할머니



지난 19일 고교학력 인정 평생학습 시설인 광주 대신고를 졸업한 이이순(72·광주시 남구 주월 2동) 할머니는 손녀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아두고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고, 이제야 국졸(國卒)을 고졸로 쓸 수 있게 됐다.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는 재미에 꼭 빠져 지내니까 이런 날도 오고,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 같았다.”

이 할머니는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공부를 중단해야 했던 게 평생의 한(恨)이었다”고 했다. “6·25 터지고 험한 산골로 피난 갔다오는 바람에 연필을 놓게 됐다. 5남매 중 첫째라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낼 엄두도 못냈다.”

아들 둘·딸 둘을 대학까지 보내놓고도 학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할머니는 자식들의 권유로 지난 2006년 3월 늦깎이 중학생(진명중학교)이 됐다. 내친김에 2008년 2월 꿈에도 바라던 ‘여고생’이 됐다. “길을 걷다가 영어로 된 간판을 하나씩 읽을 때면 얼마나 뿌듯하고 재미있던지.” 이 할머니가 밝히는

만학(晩學)의 계기는 영어 공부였다. “전쟁을 겪고 내 나이 열여섯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얼마 뒤 시내 양장점(의류 매장)에 취업하고 싶었는데, 영어를 할 줄 몰라 포기했다. 공부에 대한 미련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늦깎이 여고생이 된 할머니는 마냥 신이 나 아침이면 눈이 절로 떠졌다고 한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다. 학교에서 무조건 큰인내 대접받는 게 불편해 당번 활동이나 교실 청소 등 학교 활동을 일부러 앞장섰다.

이 할머니는 이날 졸업이 새로운 공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대학을 가든 가지 않든 공부는 계속 할 거예요. 학교 다니는 동안 영어와 한자를 배웠는데, 그냥 두면 잊어버리니까 계속 공부 할 거고, 한자능력검정시험 자격증도 딸 거야. 3급 됐는데, 계속 급수 올려야지.” 김경희기자 khh@kwangju.co.kr

## 김병국 광주 서부서 형사과장

### 여성인권 공로 ‘디딤돌상’



김병국(40)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22일 여성부와 전국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9년 디딤돌상’을 받았다.

‘디딤돌상’은 지난해 1년간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성인권 보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여성단체 최고 권위의 상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5월 서부경찰서에서 성폭력전담팀을 꾸린 이후 원혼촌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일명 ‘원혼촌 발바리’ 용의자를 붙잡는 등 4명의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검거했다.

한편, ‘디딤돌상’ 시상식은 22일 오후 5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녹색교통운동 기후지킴이

### ‘주부 자전거 실천단’ 구성

광주녹색교통운동과 광주시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주부 50여명으로 빛고를 기후지킴이 ‘자전거 실천단’을 구성했다. 이들 자전거 실천단은 첫 사업으로 2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제주지역 기후 변화 대응 투트트 찾아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자전거 실천단이 자전거를 타고 220km에 달하는 제주지역 해안을 돌면서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시책을 배우고, 광주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단은 제주한라산목련 견학, 예레생태마을 및 반딧불이 체험관 및 올레길 탐방, 유기농 생산지 및 월정폭력단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김후란 시인 57년만에 서울대 졸업



한국의 대표적인 원로시인 중 한 명인 김후란(여·76)씨가 서울대에 입학한 지 57년만에 졸업장을 받는다.

서울대는 25일 오후 관악캠퍼스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김 시인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1934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씨는 1953년 부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 가정교육학과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한국일보에 입사하는 바람에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처리 됐다.

/연남뉴스

## 헤이그 전 美 국무장관 별세



알렉산더 헤이그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일 새벽(현지시간) 숨졌다. 향년 85세.

고인은 지난날 말부터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소재 존스홉킨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들은 고인이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고인은 로널드 레이건 정부 출범 당시 초대 국무장관직을 역임하며 1980년대 초반 역동의 한미관계를 조율해 왔다.

/연남뉴스

## “남도 재료가 초밥 세계화 이루겠다”

### ‘초밥 최강 달인’ 뽀인 안유성씨

전국 ‘초밥 최강 달인’에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리사가 뽀인 화제다. 주인공은 광주에서 일상당을 운영하고 있는 안유성(40)씨. 특히 이 요리사는 순천대학교에서 조리과학과 시간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안씨는 최근 ‘SBS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에서 ‘초밥 최강 달인’에 선정됐다. 안씨는 ‘완도 참복어’ ‘별고 참꼬막’ ‘목은 김치’ ‘나주 생고기’ 등남도 재료를 이용해 초밥을 만들었다. 안씨의 초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평범한 일본식 초밥이 아닌 남도식 초밥으로 대중화,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씨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촉각 만으로도 회의 종류를 단박에 알아낼 정도로 ‘절대 촉각’을 소유하고 있다. 또 안씨는 손의 온도나 기압의 신신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항상 손을 얼음물로 씻는다. 20년 전 요리사에 입문한 안씨는 일본 이가타 요리학교를 수료했으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 전남



요리사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무등산관광호텔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할 당시 안씨는 김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식사 장소로 이동해 흥어와 전복 등 남도 음식을 제공했다.

안씨는 “비록 일본에서 시작한 음식이지만 남도의 재료를 이용하면 일본보다 더 뛰어난 초밥을 만들 수 있다”며 “일본을 넘어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남도식 초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o@

## 금보라 채무관련 소송서 오현경에 판정승

### 텔런트 금보라(47·본명 손미자)가 텔런트 오현경을 상대로 빚 소송을 벌여 이겼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씨의 연예계 복귀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운영하던 A 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6월 은행 대출 이자를 연체해 담보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넘겨졌다.

이씨와 친한 금보라는 ‘오씨가 이씨에게 값을 빚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씨에게 빨리 채무를 해결하라고 독촉했다. 그러다 이씨의 은행 대출금을 자신이 갚아주고 이씨가 오씨에게서 받은 돈을 대신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평소 오씨 일을 자주 처리해 주던 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오씨와 통화하고 나서 김씨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

김씨는 ‘오씨와 함께 채무금 3천300만 원을 8차례로 나눠 금보라에게 송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오현경 대리인 김모 O’이라고 쓰고 서명했다. 금보라는 이후



금보라 오현경

이씨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는데 오씨가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오씨는 자신을 대리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김씨가 멋대로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보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오씨와 김씨가 연대해 금보라에게 3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남뉴스

## 농협 전남지역본부 ‘고객만족 결의대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동복)는 최근 삼익이사 및 전무, 지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상호금융 사업추진 및 고객만족 결의대회’를 열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광주·전남재향군인회 정기총회



광주·전남재향군인회(회장 성해석)는 최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대강당에서 2010년도 ‘제52차 정기총회’와 ‘2015 하게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개최’ 행사를 열었다.

(광주·전남재향군인회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환축

#### ▲최명연(前 한화여수)·박윤이씨 아들 회준군 공상순(여수시청)·박인숙씨 딸 진희양=27일(토) 낮 12시30분 여수 화동 선소 앞 마리나웨딩홀 2층.

#### ▲이영진(초당대 교수)씨 삼남 동근(광주방송 서부방송본부 기자)군 정갑용(전 무안일로 농협)씨 장녀 초아(목포 한국병원)양=27일(토) 오후 1시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블루홀.

###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빌 노인

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으신 분.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등. 062-959-2340.

▲이주여성진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인권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광주성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10시~ 오후 4시까지 일반 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

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8090.

### 모집

####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용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베데스다노인요양원 어르신들 모심=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으로 편성형의 최신 시설로 건축, 비공부담 없이 최신 시설을 이용하시며 전문적인 직원들과 자식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심. 061-371-

8090.

▲수공예 문화센터 회원 모집=리본공예·비즈공예·한지공예·CA방과후지도사 전문 자격증, 취미반, 창업반 모집(1대1지도), 비즈공예·리본공예는 무료수강, 수공예협회서부지구지부(구 송원대하 정문) 062-367-1040, 010-7942-6597.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모집=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자원자격을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문의 061-330-4169.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풍암 초등학교 아침 5시30분~7시 30분, 010-9877-6166

▲용마 축구클럽 회원 모집=건강한 생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마술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2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디지털카메라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재봉틀 홈데스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11시5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동구문화센터 겨울학기 문화강좌 회원모집=홈페이지 www.macj.kr 또는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진경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3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색소폰 교육회원 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진월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GS 피부미용, 네일아트 학원 교육생 모집=피부 국가자격증반,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삼촌동 5-18문화센터 맞은 편. 062-381-5051.

▲풋볼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장원 선발=발로 볼을 차 출에 넣는 풋볼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볼프장. 010-4604-4608.

마음까지 편안한 - **금호장례식장** ☎227-4000

**해정현경님(남: 88세)**

주/부: 김 진/박연애  
 아내: 권경희/이영진, 김현숙/김영희  
 장녀: 정진희/김민수, 정진자/김명진  
 장남: 김민준, 정진우

장지: 화순이안선원

**해정영선님(남: 86세)**

주/부: 최영수/이순자, 최영수/박영순  
 아내: 최순희/김영희, 최영진/박영진

장지: 화순이안선원

**심기교님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주치장 - 정갈한 음식!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입문의 **1566-4499**

한대종합상조 전속대표 **노주현**